

“제주형 자율학교, 정체성부터 명확히 세워야”

도교육청, 지난 7일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토론회
교육계, 양적 확대 지적하며 “질적 전환” 한목소리
특정 자율학교 쏠림 문제 해소·정책 일관성도 요구

최근 3~4년 사이 ‘제주형 자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반 학교와의 차별성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7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개최한 ‘2026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토론회’에서다. 기존대로 지정 학교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변화와 효과, 균형 발전 등을 기준으로 질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재구조화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따르면 도내 초중고의 절반 이상(53.7%, 188곳 중 101곳)이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곳(58.4%)이 2023년

이후 신규 지정됐을 만큼 유독 단기간에 급증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현재 다문화배움학교, IB 학교 등 15개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토론회에선 이 같은 양적 확대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자율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성과를 내 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희소성이 떨어진 현시점에서 일반 학교와의 경계 역시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나선 김명희 신산초등학교 교장은 ‘정체성 명료화’가 우선

돼야 한다면서 “자율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인지, 그 변화가 교육 전체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학교 지정 유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됐다. 고령 대정고등학교 교사는 “과연 15개 유형의 학교는 얼마나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제주 자연, 문화, 역사, 마을 환경을 교육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마을생태학교’, ‘제주문화학교’, ‘건강생태학교’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일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영 방향과 적정 운영 규모 등이 단순히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자율학교로의 쏠림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율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통학구역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두고 교육 선택의 기회를 넓혀 왔는데, 이런 규정이 되려 인근 학교의 학생 수 급감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탓이다. 고령회 표선중학교 교장은 “특정학교 선호 현상과 지역별 편차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전입학 규칙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혜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서부지회장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등장했다”며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을 축적하면서 한 학교를 넘어 제주 공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외국인주민 정착 도울 생활 가이드북 발간

도, 3000부 제작·관련 기관 배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과 일상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맞춤형 필수 정보를 담은 ‘2026 제주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2013년부터 각종 생활·행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분포와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작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한·영 통합판과 다국어 통합판 등 2종으로 발간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별 단독판 5종으로 각각 분권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대폭 높였다.

가이드북에는 ▷외국인 등록·체류 ▷거주지 정보 ▷취업·근로 ▷주거·부동산 ▷교통·운전 ▷교육 ▷생활환경·안전 ▷의료·복지 ▷금융 ▷소비생활 ▷문화·관광 등 제주 생활에 꼭 필요한 11개 분야의 실용 정보가 수록됐다.

제주도는 가이드북 총 3000부를 제작해 도내 주요 관공서와 유관기관,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 등 102개소에 배부를 마쳤다.

아울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소병기자

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별 단독판 5종으로 각각 분권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대폭 높였다.

가이드북에는 ▷외국인 등록·체류 ▷거주지 정보 ▷취업·근로 ▷주거·부동산 ▷교통·운전 ▷교육 ▷생활환경·안전 ▷의료·복지 ▷금융 ▷소비생활 ▷문화·관광 등 제주 생활에 꼭 필요한 11개 분야의 실용 정보가 수록됐다.

제주도는 가이드북 총 3000부를 제작해 도내 주요 관공서와 유관기관,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 등 102개소에 배부를 마쳤다.

아울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소병기자

폭염 장기화로 화재위험경보 ‘심각’ 격상

제주소방, 화재취약대상 예찰 등 예방·대응 강화

소방청이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가 본격 시작된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운영된다. ‘심각’ 단계는 전국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가 3개 이상 발령되거나 중요행사 기간 중 특보가 2개 발령된 경우 내려진다.

전국 단위 ‘심각’ 경보 발령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화재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제주 여름철(6~8월) 화재는 총 647건이다. 전체 화재 2878건의 22.4%를 차지했다. 이 화재로 사망 3명 등 총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 186건(28.7%), 기계적 요인 43건(6.6%) 순이다. 특히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배선,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화재위험경보 해제 시까지 ▷소방관서 지휘체계 유지 ▷가용 소방력 및 출동장비 점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화재취약대상 예찰 강화 ▷관계기관 간 위험정보 공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소방관서 전광판 활용 화재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한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폭염 기간에는 냉방기기와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며 “화재 위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화재취약대상 예찰과 긴급 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 공동주택서 화재 연기 흡입 4명 병원 이송

9일 오후 1시 3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6분 만인 오후 1시42분에 구조대와 소방대원을 보내 오후 2시 5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구조대는 이날 4층에서 연기를 흡입한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른 세대에 있던 8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구조대는 건물 내부에 있는 연기를 빼내는 동시에 세대별로 정밀 인명 검색을 실시했으나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경찰과 함께 최초 발화한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목 축이는 방울새 무더위가 이어진 8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도로변의 물웅덩이를 찾은 방울새들이 목을 축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서관 오는 22일 ‘자녀 이해 특강’ 장애 아동 특성·감정표현 격려 방법 등 소개

제주도서관이 장애 아동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달 22일 오전 10시 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여는 ‘자녀 이해 특강’이다.

이날에는 홍부경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이 강의에 나서 학령기 발달 장애 아동의 특성과 자녀의 감정표현을 격려하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의 특성과 자녀와의 소통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성인 30명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선착순 접수. 김지은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캐스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